일본 버섯류 생산 동향('14)

팽이버섯	팽이버섯은 버섯류 중에서도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, 나베요리에는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다. 2014년의 생산량은 135,919톤으로, 전년대비 1.7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후쿠오카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133,647톤 → ('14) 135,919, 1.7%↑
새송이버섯	새송이버섯은 지중해연안이 원산지로, 씹는 맛 등 식감이 좋아 동서양의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려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다. 2014년의 생산량은 39,645톤으로 전년대비 1.4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히로시마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40,200톤 → ('14) 39,645, △1.4%
느타리버섯	느타리버섯은 표고버섯과 나메코와 같이 예로부터 재배되고 있는 버섯이다. 2014년의 생산량은 2,327톤으로 전년 대비 1.6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이바라키현 등이 있다. * 증감률 : ('13) 2,290톤 → ('14) 2,327, 1.6%↑
건표고버섯	건표고버섯은 숲 등에서 참나무, 졸참나무 등을 이용한 원목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, 기온, 강우량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된다. 2014년의 생산량은 3,175톤으로 전년대비 9.3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오이타현, 미야자키현, 구마모토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3,499톤 → ('14) 3,175, △9.3%
생표고버섯	생표고버섯은 건표고버섯과 같이 숲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목재배가 주류였지만, 최근엔 원목에 비해 다루기 쉬운 균상재배(톱밥 등을 덩어리로 굳힌 것에 종균을 접종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)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. 2014년의 생산량은 67,510톤으로, 전년대비 0.6% 감소했다. 또한, 생산량에 대한 균상재배의 비율은 89%로 전년과 같다. 주 생산지는 원목재배는 시즈오카현, 가고시마현, 구마모토현 등이고 균상재배는 도쿠시마현, 홋카이도현, 이와테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67,946톤 → ('14) 67,510, △0.6%

나메코 (담자균(擔子菌)류에 속하는 버섯)	나메코는 예로부터 숲 내 원목에 의한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, 현재는 공조시설을 활용한 균상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2014년의 생산량은 21,796톤으로 전년대비 6.8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야마가타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23,383톤 → ('14) 21,796, △6.8%
만가닥버섯	만가닥버섯은 요리 등에 이용하기 쉬운 특징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어 최근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, 대기업의 진출로 경쟁 또한 치열하다. 2014년의 생산량은 115,751톤으로 전년 대비 1.4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후쿠오카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117,363톤 → ('14) 115,751, △1.4%
잎새버섯	잎새버섯은 균상재배가 확립된 이후, 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4년의 생산량은 49,541톤으로, 전년 대비 9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니가타현, 시즈오카현, 후쿠오카현 등으로 특히 니가타현이 전국 생산량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다. * 증감률 : ('13) 45,453톤 → ('14) 49,541, 9%↑
송이버섯	송이버섯은 표고버섯, 나메코 등 고사목(죽은 나무)에서 발생하는 부생성 버섯과는 다르게, 소나무 등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지켜가며 생육하는 균근성 버섯이기 때문에 현재 실용적인 인공재배 기술이 없고 자연발생한 버섯을 채집해 시장 등에 출하하고 있다. 이 때문에 생산량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. 2014년의 생산량은 42톤으로, 전년대비 10.5% 증가했다. 또한, 국내 소비량의 96%는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이와테현, 오카야마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3) 38톤 → ('14) 42, 10.5%↑
기타버섯	그 밖의 버섯으로는 최근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생산이 증가하였거나, 이후 성장이 기대되는 야마부시타케, 하타케시메지, 타모기타케, 혼시메지 등이 있다.

※ 출 처 : 일본 임야청 ('15.9.29일 발표자료)